

# 포스코, 저탄소 녹색사업 7조원 투자

## 연간 매출 10조원에 8만명 고용창출 ...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도

포스코는 2018년까지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7조원을 투자하고, 2020년까지 쇄물 1톤당 이산화탄소(CO<sub>2</sub>) 배출량을 9% 감축기로 했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녹색사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2월3일 발표했다.

쇄물 1톤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2.18톤에서 2020년 1.98톤으로 최소 9% 감축하고, 부생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증기발전과 복합발전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2015년까지 쇄물 1톤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 정도 더 줄일 방침이다.

2020년까지 재가열 없는 제강-열연공정 등 저탄소 공정 기술을 개발해 배출량을 6% 더 낮춘다는 목표를 세우는 등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에 총 1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제철소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는 별도로 승용차 경량화와 연비 향상에 기여하는 고장력 자동차 강판 보급을 확대하고, 친환경 시멘트 원료인 수재 슬래그 생산을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차세대 발전용 연료전지의 국산화와 해양 풍력발전 등을 통해 1400만톤의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연료전지와 풍력·해양에너지, 생활폐기물 연료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총 7조원을 투자해 연간 10조원의 매출과 8만700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편, 포스코는 기후변화 대응체계와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성과 및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담은 2009 탄소보고서를 발간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2/03>